

##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지연숙\*

<차례>

1. 서론
2.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
3. <소현성록〉의 역사 인식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기존 논의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시공간적 배경을 고찰하여, 〈소현성록〉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소현성록〉의 공간적 배경은 소부의 입지, 소부 내의 공간, 인물들의 동선으로 나누어 살폈다. 도성과 40리 떨어져 있는 소부의 입지는 도성으로 상징되는 세속, 현실, 권력 등을 지향하면서도 비판적인 거리를 두려는 이중적 태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부 내의 공간에서는 양부인의 절대적 권위가 聚星殿이라는 건축물로 구체화되며, 작품이 추구하는 윤리적 기준의 강화는 가내의 공간 분할(외당, 중당, 내당)과 결부하여 형상화되었다. 인물들의 동선을 통해 볼 때 작품은 북송의 강역을 중복 없이 고르게 이용하였으며, 거란과 대치하는 당시의 정세를 반영하고 있었다.

〈소현성록〉의 시대적 배경은 곧 역사이므로, 작품에 나타난 역사 사실들을 점검하였다. 역사 사실들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북송대 역사에 대해 해박할 뿐 아니라, 〈양가장연의〉나 〈북송지전〉 등의 소설도 숙지하고 있었다. 〈소현성록〉은 역사 사실 제시를 통해 역사와 작품을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주인공들을 역사적 사건 속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주인공들을 철수시킨다. 이것은 도성과 거리 두기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거리 두기이다.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소현성록>이 거리 두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작품이 추구하는 소현성의 도덕성이 도성과 역사로 표상되는 혼탁하고 치열한 현실에서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자는 소현성의 도덕성이 빛을 발하는 적절한 범위를 찾아 작품의 영역을 자운산 소부로 축소시켰다. 또한 거리 두기는 동시대에 향유되던 소설들을 의식하고 독자적 노선을 모색한 결과라는 점에서 작품의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다.

**주제어** 소현성록, 자운산, 공간, 역사, 북송(北宋), 송사(宋史), 도덕성

## 1. 서론

<소현성록>은 현전하는 장편소설 가운데 가장 앞선 작품인 동시에 여러 소설 작품들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 장편소설사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소현성록>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며, 그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제출되었다.<sup>1)</sup> 선행 논의를 통해 <소현성록>에

1)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임치균, 「연작형 삼대륙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1995.
-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소, 1995.
- 송성욱, 「훈시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7.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 소장 21 권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 변진환, 「고전소설의 脫有機性에 대한 연구-<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

접근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현성록>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돕는 기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소현성록>의 사건과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작품이 어떠한 시공간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초기 연구에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 및 역사와의 관련을 정리하였으나<sup>2)</sup> 주요 인물들이 허구적으로 창조되었음을 확인한 뒤에는 더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길수가 <소현성록>의 공간적 배경과 역사에 대한 단편적 언급에 주목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길수는 연구의 목표가 장편화 방법을 밝히는 데 있었으므로, 본격적으로 <소현성록>의 시공간에 착목한 것은 아니었다. 또 텍스트 선정이나 자료 해석에 있어서도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현성록>의 시공간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작품 이해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소현성록>의 시간은 宋代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되므로, <소현성록>의 시간을 살피는 일은 작품의 역사 인식을 분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善本으로 인정된 이대본을 대본으로 삼는다. 완질의 이본 가운데 이대본과 차이를 보이는 규장각 21권본은 필요에 따라 참고하도록 하겠다.

---

사학위논문, 2003.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이대본과 서울대 21 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2)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2.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

### 1) 소부의 입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汴京 남문 밖 40리에 있는 자운산(紫雲山)장현동(藏賢洞)으로, 전적으로 허구적인 공간이다. <소현성록>은 자운산의 풍경을 공들여 묘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화설 변경 남문 밖 스십리의 현 퇴히 이시니 호왈 즈운산이오 쥬회 삼백 니라 산형이 풀당 고존 듯 흐엿는디 폭뢰 전후로 솟는 곳이 칠십여체라 잔완 이 흘너 산 전면의 모다 덩현이 되니 못 쥬회 십여리오 김희 일천척이라 곁 온 와농담이라 못과 산을 남북으로 두르고 그 가운데 현 골이 이시니 곁은 장현동이라 쥬회 백시오 평탄하기 뉴리로 밀턴 듯 흐더라 스면의 창창녹둑과 낙낙당송이 둘렀고 그윽한 경티와 비상한 풍식이 무릉별세계오 봉니방당이라 즈운산 높회 천여당이오 봉만이 열둘히라 텃디 초관홀 적 물근 정기와 녕이흔 괴운이 영괴여 와농담과 즈운산의 좁겨 괴이흐미 다른 산천과 크게 꺾디 아니흐더라 (이대본 권지일 편)

주인공의 世系 설명에 앞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특정 공간의 확보가 작품을 창조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자운산 장현동을 간략하면서도 빠짐없이 훑고 지나가는 이 프레임은 앞으로 등장할 주인공과 펼쳐질 서사의 압축적 이미지이다. 이 자운산의 이미지 위에 <소현성록>이라는 작품이 구축되는 것이다.

작자는 소부를 어디에든 둘 수 있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소부는 변성 안에 있을 수도 있고,<sup>3)</sup> 낙양이나<sup>4)</sup> 장안(서안) 같은 다른 도시에 있을 수

3) <사씨남정기>에서 유부는 北京 順天府, <창선감의록>에서 화부는 皇城 萬歲橋 남쪽에 있어, 모두 도성 내이다. <소문록>에서는 소부가 도성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별장 안궁도 도성으로부터 수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도 있고, 보다 궁벽한 사천이나 산서, 또는 경치가 아름다운 절강이나 강소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작자는 소부를 위해 변성에서 40리 떨어진 자운산이라는 공간을 창조했다. 도성 내부를 피하되, 도성으로부터 소외되는 것도 피하자는 계산이다. 자운산은 도성과 여유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떨어져 있지 않다. 40리란 도보로도 하루 안에 왕래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 다시 말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가기 때문이다.

작자는 규모와 형태면에서 속세와 격절된 청정한 공간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70여 개의 폭포, 그 폭포가 흘러들어 형성된 맑고 깊은 와룡담이 앞에 펼쳐지고, 열두 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둘레 삼백 리의 거대한 자운산이 뒤를 감싼다. 심산궁곡, 洞天福地가 따로 없다. 그런데 이러한 유벽한 공간이 도성으로부터 겨우 40리 거리에 존재한다. 세속에 무심한 듯 등을 돌리고 있지만 바로 등 뒤에 세속이 있는 것이다.

자운산 중에서도 장현동은 더욱 기가 막힌 조건이다. 와룡담과 자운산으로 둘러싸인 장현동은 둘레 백 리의 평지를 확보하고 있다. 자운산만 생각한다면 소부는 깊숙하고 그윽한 산 속에 있다고 상상하기 쉽다. 그러나 소부는 유리로 밀친 듯이 평탄한 지형을 차지한다. 경사가 없어 주거에 최적이며,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불어날 세대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운산의 여러 골 중에서도 장현동이 도성과 직선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시 왈 이 산 주회 삼백여리나 경소로서 바로 촌각면 소부는 지극 갖가 온 거술 슈지 아디 못흐고 이리 와서니 만일 소부 상거를 니룰딘대 이제 삼

4) <숙향전>에서 李府는 낙양과 황성에 두 채의 집을 두고, 鄉第와 京第로 사용한다.

십니를 형호여야 가리라 (이대본 권지오 23~24면)

소운경의 아내가 될 위씨가 길을 잘못 들어 선학동에 이르렀을 때 도사가 가르친 말이다. 같은 자운산 안에 인접한 선학동과 장현동의 거리가 30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성으로부터 장현동에 이르는 도로 사정이 얼마나 완벽한 지 짐작할 수 있다.

작자는 소부를 위해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언제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 또 세상과의 격리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족적으로 지낼 수 있는 절묘한 공간을 마련했다.<sup>5)</sup> 자운산 장현동은 은거의 공간 이면서 동시에 仕宦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때문에 <소현성록>에서는 十蘇가 모두 벼슬길에 나간 이후에도 도성 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며, 소현성이 退仕했다고 해서 전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고전소설에서는 인물들이 出處에 따라 이동하지만,<sup>6)</sup> <소현성록>에서는 공간을 바꿀 필요가 없다.<sup>7)</sup>

5) 역으로 생각하면 도성에서 40리 떨어진 곳에 소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부로부터 40리 떨어진 곳에 도성을 배치했다고 할 수 있다. 소부는 작품 속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운산이 <창선감의록>이나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집'과 달리 절대 공간, 신성 공간이라는 탁원정의 지적(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p.150)은 타당하다.

6) <옥루몽>에서는 양창곡이 퇴사한 후 東郊 밖 100리 聚星洞으로 이사한다. 100리라는 거리는 하루 안에 도성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7) 고전소설의 공간 설정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의 전통과 변화의 궤적을 지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원론적인 家居地觀은 조정에 벼슬할 때는 서울에서 살고 벼슬을 그만 두면 향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18세기 李益 역시 서울이 사치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사족의 주거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져서 서울 편향이 강해진다. 정약용은 서울에 살 수 없으면 근교이라도 살아야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창작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pp.14~16. 참조).

자운산의 입지는 소부의 인물들이 세속, 현실, 정치, 권력 등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유사하다. 소부의 인물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고 고관을 역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거나 국정을 주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현실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는다. 권력을 누리면서도 권력과 거리를 두고, 권력을 거부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권력의 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다.

자운산은 소부가 위치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소부 그 자체를 표상한다. 작품 내에서 자운산은 소현성가의 대명사로 사용되며, <소현성록>의 자장 안에 있는 다른 작품들 또한 소현성가를 '자운산'으로 지칭하며 자운산과 관련을 맺고자 애쓴다.<sup>8)</sup> <소현성록>의 파생작들이 자운산을 동경하는 것은 자운산이 단순한 공간적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운산은 작품 내적으로는 소부가 이룩한 淸德과 繁華를, 작품 외적으로는 <소현성록>이 거둔 소설적 성공을 상징한다. 따라서 파생작들이 선망하고 나눠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자운산으로 대변되는 <소현성록>의 권위이다.

그런데 이본에 따라 소부의 입지에도 변화가 있다. 규장각 21권본은 <소현성록> 완질본 가운데 일정한 개작이 일어난 이본으로, 이 점은 선행 논의에서 충분히 밝혀진 바 있다.<sup>9)</sup> 규장각 21권본에는 소부의 대월루(待

8) <설씨이대록>, <화씨팔대충의록>, <옥선현봉소설록> 등은 모두 소현성가를 '자운산 소부'라고 부른다. <화씨팔대충의록>은 이에 화부가 자운산의 또 다른 골짜기인 선학동에 있는 것으로 설정했고, <옥선현봉소설록>에서는 운학동에 별원을 지었다고 했는데 운학동(<소현성록>에서는 운수동) 역시 자운산의 또 다른 골짜기이다. <소현성록>에 대한 기사 역시 제목이 <자운가>여서, '자운산'은 곧 '소부'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9) 이대본, 규장각 26권본, 규장각 21권본, 박순호본 등 이본의 특성과 이본 간의 관계는 다음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형상화 변이양상-이대본

月樓)에 올라가면 장안 백만 공후제택이 눈앞에 보인다는 언급이 나온다.

츠시 소스미 직임이 못춤 한가하니 형태로 놓고 주 현여 대월누의 오 르니 이 뒤 놓하 뒤호로는 와룡담 주쇼정과 산형이 다 뵈고 압호로는 장안 빅만 가의 공후제택이 목하의 버러시니 시절이 모춘가절이라 빅해 만발 호고 괴 형괴석과 증암절벽의 증만접장이라 (규장각 21권본 권지팔 48~49면)

소부의 입지가 원래 설정과 달라졌다. 소부의 누대에서 도성을 목하에 굽어 볼 수 있어 도성과의 거리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며, 누대 자체가 도성을 향하고 있다. 전면에 도성 경치를 넣기 위해서 와룡담과 자운산을 한꺼번에 뒤쪽으로 배치한 것도 변화의 하나다. 40리(16km) 떨어진 도성이 가시거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는 도성, 뒤로는 산과 연못을 볼 수 있다면 탁월한 전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망은 규장각 21권본 개작자가<sup>10)</sup> 부여한 것이지, 원작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공후의 제택이 목하에 벌여있는 장관이 들어가면 소부는 바로 세속과 접하게 되고, 그러면 자운산을 굳이 도성 남문으로부터 40리 떼어놓은 보람이 사라진다. 원작자가 추구한 세속으로부터의 거리, 청덕과 변화의 황금분할이 무너지는 것이다.

---

과 서울대 21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에 따르면, 이대본과 규장각 26권본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규장각 26권본에 약간의 축약과 탈락이 존재하고, 규장각 21권본은 전체적으로 축약이 심하고 특히 <소씨삼대록>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작이 이루어졌다. 박순호본은 규장각 21권본과 이대본의 혼합 형태로, 규장각 21권본을 따르면서 문맥이 어색한 부분은 이대본과 같은 형태로 바로잡혀져 있다. 이주영 역시 규장각 21권본과 규장각 26권본 가운데 21권본이 후대 이본이며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규장각 소장 21권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10) 개작자는 규장각 21권본의 필사자와는 다르다.

공간 설정의 변개는 사건의 변개를 수반한다. 이대본에서는 대월루(待月樓)가 아닌 목란정(木蘭亭)에 모이며 경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sup>11)</sup> 부부 동반으로 모였다가 부인들이 일어난 후 시첩(소영, 채란, 현아)들을 불러 논다. 반면 규장각 21권본에서는 도성이 내려다보이는 대월루(待月樓)에 남자들만 모여 경치를 감상하며 교방의 풍류를 잘하는 미인들을 불러 즐긴다. 여기에서 교방이란 소부에 딸린 교방으로, 외방에서 바친 수백 명의 창기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대본에 교방이나 교방에 속한 창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구운몽>을 비롯한 많은 고전소설이 부중에 교방을 두고 기녀를 기른다. 규장각 21권본은 이러한 일반적인 예에 따라 소부 바깥쪽에 교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렸다. 그러나 이러한 변개는 원작의 지향을 무시한 것이다. <소현성록>은 시종 교방과 창기에 대해 부정적이며, 교방과 창기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변화와 방탕을 경멸한다.<sup>12)</sup> 원작자는 소부를 번요하고 부잡한 세계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40리라는 공간적 거리를 두고, 그 공간적 거리만큼 소부의 청정함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규장각 21권본에서는 공간적 거리감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소부 역시 일반적 장편소설의 주인공 가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소현성이 아들들을 별하는 방식에서도 이대본과 규장각 21권본이 차이를 나타낸다. 이대본에서 소현성은 아들들의 시첩을 모두 내치고 아들들을 심당에 가둔다. 몇 달이 지난 후 양부인이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손자들을 엄중하게 훈계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반면 규장각 21권본

11)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목란정은 윤경의 아내이자 소가의 총부인 위씨의 처소로 생각된다. 윤경과 위씨가 목란정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형제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12) 예교를 남녀 모두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소현성록>은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공정한 소설이다.

에서는 소현성이 군관하리를 불러 아들들을 결박하여 때리며, 특히 소운성은 죽기 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심하게 다스린다. 결국 양태부인의 명으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규장각 21권본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대본과 규장각 21권본이 지적하는 잘못 자체가 다르다. 이대본에서 문제는 첩을<sup>13)</sup> 끼고 노래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해 아들들 모두를 공평하게 문책한다. 규장각 21권본에서는 창녀를 데리고 놀았다는 것보다 소영 겁탈, 형씨와의 혼인 조작 등 운성의 누적된 과오에 초점이 맞춰진다. 창녀를 데리고 놀았다는 사실은 소현성의 노기를 폭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뿐 그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

소영 겁탈과 혼인 전에 형씨를 훔쳐 본 사실은 창기를 불러 논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이다. 이대본에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엄중하게 다루어진 뒤이기 때문이다. 소현성은 운성과 부자의 의를 끊고 사당을 향해 꿇어앉아 더러운 물을 세 그릇 마셔 청죄하려 한다. 이것은 운성을 죽도록 때리는 것보다도 가혹한 처벌이다. 때문에 운성은 스스로 몸을 결박하여 청죄하고, 석씨가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자신을 내쫓으라고 한다. 이렇게 한 바탕 소동을 벌인 뒤에야 운성은 겨우 용서를 받는다. 규장각 21권본은 이러한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운성의 잘못을 대월루 사건에 합쳐서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내버렸다.

규장각 21권본은 소부를 소부답게 만드는 도덕적 완고성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장편소설의 관습을 따랐다. 21권본의 소현성은 장편소설에서 비교적 흔한 인물형인, 아들의 여러 가지 잘못을 묵시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분노를 터뜨리고 폭력적으로 대처하는 아버지와 닮았다. 이러한 인물은 杖責 이외의 문제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대본의 소현

13) 소영은 양첩이지만 채관과 현이는 기첩인 것으로 보인다.

성과는 다르다. 이대본의 소현성은 자녀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하며 정책보다는 의리와 도덕을 들어 말로 꾸짖는 데 능하다.

규장각 21권본은 원작이 추구하는 도덕적 결벽성을 희석시키고, 일반적인 장편소설에 근접하였다. 규장각 21권본이 평범해진 것은 원작자가 설정한 자운산의 입지와 도성과의 40리 거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무시했기 때문이다.<sup>14)</sup>

## 2) 소부 내의 공간

소부는 원래 처사 소광의 집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처사의 집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장엄하다. 처음부터 소부는 누각이 거룩하고 열두 문을 지나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sup>15)</sup> 10자 5녀가 태어나고 혼인했으나 집을 증축했다는 언급이 없는 것도 작자가 소부를 광활하게 여기는 까닭인 듯하다.<sup>16)</sup>

소부의 중심은 正堂인 취성전(聚星殿)이며, 양태부인의 거처이다. 聚星은 후한 때 陳寔과 荀淑의 고사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陳寔이 자질을 데리고 荀淑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자질과 함께 학문을 토론했는데, 이때

14) 규장각 21권본에는 <구래공정충직절기>의 독서 경험이 들어 있어 <구래공정충직절기>보다 후대에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규장각 21권본은 후대 장편 소설의 특징을 나타내며, 특히 <소씨삼대록> 부분이 그러하다.

15) 김희 드러가 혼 큰 소홀 건너 꼭동으로 드러 오리는 가니 술 스이에 거룩한 누각이 일평의 벽이니 이 곳 소처스의 집이러라 동구 석비의 사겨시디 즈운산 외농담 장현동 이라 호엿고 밋 그 문의 다드르니 푸른 문의 익즈를 빼시되 소처 스은성문이라 호엿거 놀 제인이 차탄왈 진짓 괴특흔 세계로다 호고 명함 드러니 청의동지 나와 드러오기를 니르거늘 제인이 동즈를 풀와 열두문을 디나니 가지록 훤출 호고 괴이 호여 몸이 학우 등선홀 듯 호터라 혼 곳의 니르니 사창이 한가 호고 꼭난이 화려 호야 표현흔 선당인 디 (이대본 권지일 29 ~30 면)

16) 작품 마지막에 석부인의 벽운루만 중수한다.

모인 두 집안 젊은이들이 모두 名流가 되었고, 그날 德星 이 모여 있었으므로 太史가 5백 리 밖에 賢人 이 모였다고 아뢰었다고 한다.<sup>17)</sup> 즉 淸성은 뛰어난 인재가 모였다는 뜻으로, 聚星亭, 聚星堂 등 건물 이름으로 흔히 사용된다.<sup>18)</sup> <소현성록>에서 荀氏八龍을<sup>19)</sup> 여러 차례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작자는 분명히 이 고사를 알고 있었다.

聚星을 정당의 당호로 사용한 것은 자손들이 뛰어나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淸성에 ‘殿’을 붙였다는 사실이다. 동양의 건축물에는 등급이 존재한다. 그 중 殿이 위계가 가장 높으므로, 황실이나 왕실의 공식적인 집무실 또는 주된 거처가 아니면 사찰·사원·사묘 등 신을 모시는 건물에나 쓸 수 있다.<sup>20)</sup> 그런데 <소현성록>은 처사의 아내로 아무런 직첩도 없는 양부인의 처소에 어마어마한 ‘殿’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것은 현실에서라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참람한 행위이다.

물론 작품 내에서는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가능성은 두

17) 이 고사는 주자가 병풍으로 그리고 찬문을 지었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18) <창선감의록>에서도 정당이 聚星樓이다.

19) 荀淑의 여덟 아들이 모두 才名 이 있어 荀氏八龍 으로 불렸다.

20) 何本方·李樹勸·胡曉昆 主編, 『中國古代生活辭典』, 沈陽出版社, 2003, p.517. (殿堂二字最初可以通用, 後來有了等級差別. 一般地, 殿多位于宮, 廟宇, 皇家園林等建築群的中心或主要軸線上.) p.542. (殿原指大房屋, 漢以後也成爲帝王居所中重要建築的專用名.)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pp.120 ~123. (건물의 서열은 殿·堂·閣·閣·齋·軒·樓·亭의 순서이다. 전은 왕과 왕비,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쓰는 건물이다. 그 이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세자나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전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이 질서는 궁궐의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찰이나 성균관과 향교, 또는 일반 민가의 건물에도 관찰된다. 이를테면 사찰에서 부처님을 모신 건물은 ‘전’자가 붙는 데 비해 祖師堂처럼 사람을 모신 건물에는 대체로 당차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균관이나 향교에서도 공자의 위패를 모신 건물은 大成殿이요, 유생들이 모여서 강학하는 건물은 明倫堂이다. 사가에서는 절대로 건물 이름에 ‘전’자를 붙일 수 없다. 아무리 높아도 ‘당’이다.)

가지이다. 첫째는 작자가 殿의 용법에 무지하여 생각 없이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는 작자가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태부인을 황후·왕비와 동급으로 높이기 위해 역지를 부린 경우이다. 그런데 작자의 무지로 돌리기는 어려울 듯하다. 작품 내에서 황궁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양태부인의 처소에만 ‘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자가 양태부인에 대한 존숭이 지나친 나머지 무리임을 알면서도 ‘殿’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소현성록>에서 양태부인이 지니는 위엄은 상상을 초월한다. 작자는 양태부인에게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양태부인의 판단을 지지한다. 양태부인은 작품 내에서 두 번 권위에 도전 을 받는데, 한 번은 운명 처 이씨를 위한 佛事 때문에 소현성 등 남성인 물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역시 이씨 문제로 화부인이 양태부인의 판단에 반기를 들었을 때이다. 양태부인은 소운성을 중장하고 소현성의 과도한 척부를 경계하며, 서간으로 화부인을 엄중하게 꾸짖고 이후 화부인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강등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흔들림 없이 지킨다.

<소현성록>은 양태부인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부의 변화와 영광을 누리는 궁극적 주체가 양태부인이기 때문에, 양태부인의 죽음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양태부인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부에서 양태부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그것을 물리적·공간적·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취성전이다.

<소현성록>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주택 구조를 外堂, 中堂, 內堂, 後園으로 파악한다.<sup>21)</sup> 양태부인은 화석 양부인을 비롯한 여성들을 거느리고

21) 중국 주택은 기본적으로 四合院인데, 주택 규모가 커질수록 사합원의 배치가 뒤쪽으로 반복되어 兩進式, 3, 4, 5進式으로 확장되어 나간다(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

내당에 거처하고 소현성은 아들과 함께 외당인 백화헌(百花軒)에 머문다. 내당은 여성, 외당은 남성의 공간으로 엄격히 나누어진다면, 중당은 절충적이고 통합적인 공간이다. 중당은 남녀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잔치를 하기도 하며, 혼례와 같은 공식적인 의례를 치르기도 한다.<sup>22)</sup> <구운몽>에서 정경패가 여도사로 변장한 양소유의 거문고를 감상했던 곳이 중당이며, <창선감의록>에서 남채봉과 그 모친 한부인이 여승 청원을 맞는 곳도 중당이다.

중당은 여성이 나갈 수 있는 한계선이다. <소현성록>은 이러한 중당의 의미를 섬세하게 서사화한다.

일일은 참정이 등당의 혼자 안갓더니 석시 마춤 윤시 침소의 갖다가 도라가더니 그 아지 유모의게 안겨 니르니 부인이 스스로 안아 친히 화계에 나아가 고졸 것거 으즐 주고 인하여 난간의 올라 쉬고져 하여 신을 벗고 당의 올라 문득 보니 참정이 주함의 비것다가 니러서거늘 부인이 혼변 보매 그장 놀납고 또한 어려워 참식이 만안하여 다만 으즐 노코 도로 당의 낙

대학교출판부, 1999, p.320). 중국의 전통적인 생활공간의 구성 원리인 前朝後寢에 따라 주택의 전면은 접객과 의례를 위한 공간이 되고 후면은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이 된다. 3진식 주택을 예로 들자면 가장 앞쪽에 있는 1진은 주인의 거실 겸 서재, 접객 장소이고, 가장 뒤쪽에 있는 3진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되는 가족의 사적 공간이며, 중간에 있는 2진은 주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전개하는 공간으로, 여기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된다(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2, p.44).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주택이 일자형이며, 첫 번째 건물이 內室, 두 번째 건물이 中堂, 세 번째 건물이 前堂, 네 번째 건물이 外室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박지원 『渡江錄』 6월 28일조 『國譯 熱河日記』 1, 민족문화추진회 1968, p.52).

<소현성록>의 소부는 도시형 주택이 아니라 전원형 저택이므로, 당연히 후원이 존재한다. 내당, 중당, 외당, 후원으로 주택을 분할하는 인식은 장편소설 일반에서 두루 나타난다.

22) 이것은 일반 주택의 경우이고, 관공서의 中堂은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사무실, 접객실이다.

려가고져 흐거늘 참정이 그 어려워흐를 보고 이에 청하여 널오디마춤경식이 아름다오메 상완하디니 부인이 이에 니르러시니 잠간 안자 쉬미 올커 놀엇디 드러가시노쇼 석시 참정의 처업으로 나지 말흐를 듯고 뵈밧는가 더욱 붓그려 감히 말을 못흐고 또 진퇴양난하야 머뭇기는 티되 진실로 더욱 익원노라하여 심신을 농준하니 참정이 더 거동을 보고 혼연이 우어 왈 부뷔 비록 공경흐고 식석다 하니 이대도록 니외홀 거시 아니니 부인이 하 어려워하시니 내 피하야 나가사이다 언필의 난간의 노력 외당으로 나가니 석시 바야흐로 놀나를 던덩흐고 잠간 쉬어 침소로 가 일로부터 출입을 더욱 신동히 하니 (이대본 권지사 74~73편)

소현성과 석부인이 대낮에 처음으로 단들이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사건이다.<sup>23)</sup> 6년이나 같이 산 부부가 낮에 말한 적이 없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설정을 통해 작자는 두 사람의 지극한 예의, 서로 공경하는 부부의 전범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공간의 문제이다. 석부인이 소현성을 보고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대낮에 남편을 만났기 때문만이 아니다. 두 사람이 정당에서 만났거나, 소현성이 석부인의 처소에 찾아온 것이라면, 대낮이라 하더라도 석부인이 말을 못할 이유가 없다. 장소가 떳떳하고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석부인은 여성의 진출한계선인 중당에, 혼자서, 아무 명분 없이 나와 있다. 또 단순히 중당을 지나치려는 것이 아니라 중당에서 쉬려고 하다가 소현성에게 딱 걸린 것이다.<sup>24)</sup>

23) 이때는 석부인이 5자 3녀를 다 낳은 뒤다. 그런데 석부인의 나이는 여전히 19세에 불과하다. 13세에 혼인했으므로 연속 쌍둥이가 아니라면 19세까지 여덟 명을 낳기는 어렵다. 자녀는 많기를 바라지만 등장인물 특히 여성이 나이 드는 것은 기피하는 작자의 심리가 이러한 시간 왜곡을 낳았을 것이다. 중당에서 소현성을 만나 부끄러워하는 석부인은 여덟 자녀를 둔 어머니라기보다는 19세 소녀이다.

24) 중당의 존재는 중국 주택을 염두에 둔 설정이다. 그러나 신을 벗고 당에 오른다는 언급을 통해 기거양식은 우리나라식임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외관은 남의 나라 것을

물론 중당은 여성이 예의에 구애받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소현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예의보다 훨씬 엄격한 예의를 고집하므로, 석부인은 자신의 행동을 소현성이 어떻게 여길지 알 수 없어 당황한다. 게다가 소현성이 먼저 말을 걸어 잠시 앉으라고 하자, 석부인은 떠보는 줄 알고 더욱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다. 결국 석부인은 이후 출입을 더욱 신중히 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중당에서 혼자 꽃을 보는 정도의 자유도 스스로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석부인이 이처럼 중당에서 내당으로 후퇴한 것과 달리, 화부인은 중당에서 외당으로 진출하려고 하여 갈등이 빚어진다. 소현성이 없는 틈을 타서 외당과 후원을 구경하려다가 가신 이흥과 마찰을 일으키고, 소현성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다. 소씨(월영)의 도움으로 무사히 넘어가기는 하지만, 다들(양부인, 소월영, 소현성) 화부인의 급한 성격과 얇은 식견을 비웃는다. 이 사건 이후 소현성은 내외를 더욱 엄격하게 구분하고, 큰 일이 있어도 부인들과 상의하지 않으므로,<sup>25)</sup> 석부인의 후퇴와 화부인의 진출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중당이 허용선이지만, 허용선에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예교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 더 엄격한 선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소현성록>의 주장이자 다른 작품과의 차별화 전략이다.

### 3) 소부 인물들의 동선

작품에서 대부분의 사건은 자운산 소부 내에서 벌어진다. 황제가 지어준 별원 강정(江亭)이 있지만, 소현성의 총부 위씨의 피화를 계기로 윤부

---

빌려 올 수 있지만, 생활방식까지 상상하기는 어렵다. 소현성이 자주 양부인 옆에 꿇어앉아 모시는 것도 입식 생활을 하는 중국에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25) 사실 화부인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석부인은 가사에 본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 가족 즉 유씨가 차지하므로 배경으로서 중요도가 떨어진다. 작자는 인물들을 거의 자운산에 잡아두고 조정(또는 황궁)이나 도성 내의 몇몇 인척가(석부, 형부 등), 강정 등만 오가도록 한다. 그러나 소부 인물들도 가끔 자운산과 변경을 떠나는 일이 있다. 이들의 동선을 통해 <소현성록>의 지리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sup>26)</sup>

<소현성록>은 수도권을 변량(汴梁)이라고 부른다.<sup>27)</sup> 변량은 河南省 開封市의 구칭으로, 전국시대 때 魏가 大梁이라고 칭했고 唐이 이곳에 汴州를 두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소현성은 평생 네 번 자운산을 떠나는데,<sup>28)</sup> 첫 번째는 호광순무(湖廣巡撫), 두 번째는 강주안찰(江州按察), 세 번째는 운남정벌(雲南征伐), 네 번째는 태산유람(泰山遊覽)을 위해서였다. 호광은 湖南省·湖北省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고, 강주는 지금의 江西省 九江이다. 운남은 雲南省, 태산은 山東省 泰山이다.

소현성의 출행은 하남을 기점으로 호광, 강서, 운남, 산둥을 행선지로 한다. 운남으로 갈 때에는 남하하여 錢唐江을 건넜으므로 浙江省도 경유지로 포함될 수 있다. 호광, 강서, 운남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데 작품에서도 이 점을 충실히 반영한다. 강주에서 배를 타고 순행하다가 물에 빠진 가씨를 구하는 에피소드는 水系가 발달한 九江의 지형을 염두에

26) 지명 고증에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譚其驤 主編, 『簡明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85. ; 魏嵩山 主編,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廣東教育出版社, 1995.

27) 지설 운성이 만니운을 타고 무수히 드러니 다만 귀씨 의 뱃 소리만 들리고 불은 공동의 쉼노디 성은 분호도 읍죽이디 아냐 브틴드시 안자 혼 고디 다드러니 거 립을 곳 치고 썸을 흘니며 서거날 성이 머리롤 드러 보니 이곳 변량 마즈막 디계니 수천니를 둘러왔더라 (이대본 권지육 58면)

28) 교영을 서주 정배지에 데려다 준 것까지 계산하면 다섯 번이다. 서주는 江蘇省 徐州로 추측되나 확실치 않다.

둔 것이다. 전당강에서 용왕의 풍랑을 만나는 것은 전대 문학 전통을 이은 것이지만 원래 거친 강인 전당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산을 떠날 때 소현성이 가까운 태산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五岳 가운데 하남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산둥성 濟南의 泰山 이기 때문이다.<sup>29)</sup>

소운성은 단독으로 한 차례 유람을 하는데, 변경에서 출발하여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 계명산을 거치고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서촉에 이르며, 북상하여 순안까지 간 다음, 다시 남쪽으로 황하를 건너 삼관을 지나 변경으로 돌아온다.

계명산은 지금의 安徽省 合肥縣 부근에 있으며, 변경과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여행 초반의 경유지로 적절하다. 소운성은 계명산을 지난 후 곧 도적떼에게 잡혀온 세 명의 여자를 구해 주는데, 이들은 마아산 아래 사는 것으로 나온다. 마아산은 현재 安徽省 馬鞍山市에 있는 마안산의 오기이다. 서촉(西蜀) 파서(巴西)는 지금의 四川省 錦陽市이다. 순안은 북송대에만 잠깐 설치되었던 順安軍으로 지금의 河北省 安新縣이다. 삼관은 거란과 대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사요충지로 지금의 河北省 霸州市이다. 소운성은 거란과 접경하는 북송의 최북단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황하는 유로가 자주 바뀌지만 황하가 어떻게 흐르던지 하북에서 개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하를 건너야 하므로, 황하를 건넜다는 언급도 지리 정황에 부합한다.<sup>30)</sup>

29) 소현성은 태산과 함께 녕산을 목적지로 두지만, 태산에서 요괴를 만나 운의가 다치는 바람에 녕산에는 가지 못한다. 녕산은 산둥성 靑島의 嶗山(嶗山)으로 추측된다. 규장각 2권본은 녕산을 형산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형산은 湖南省에 있어 태산 여행의 여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

30) 다만 소운성이 황하를 건넌 지점은 약간 문제가 있다. 소운성은 삼관에 이르기 전에 황하를 건넜다고 했으나, 황하가 삼관 이북으로 흘렀던 적은 없다(류제현, 『중국역사지리』, 문학과지성사, pp.66~72. 참조). 따라서 삼관을 지나 황하를 건너 변경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정확하다.

소운성의 동선은 하남 →안휘 →사천 →하북 →하남으로 정리된다. 안휘, 사천, 하북을 경유하여 삼각형을 그리는 이 여정은 소현성의 동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작자가 중복 없이 북송의 영토를 고르게 활용하고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송대에 한시적으로 중요했던 순간이나 삼관을 거명하고 있어, 북송 시기 역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운산 밖으로 나가는 또 다른 인물은 소운현과 소운명이다. 소운현은 구주수의총마어사(九州繡衣驄馬御史)이므로 북송의 전국토를 돌아야 하지만, 운현이 거친 곳 중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서주뿐이다. 서주는 江蘇省 徐州, 安徽省 舒州 등 여러 곳이 있어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운현은 서주 월출산에서 형수 형씨를 찾아 데려간다. 소운명은 산서순안어사(山西巡按御史)로 나갔다가 안문현에서<sup>31)</sup> 이씨를 거두어 돌아온다. 雁門縣은 지금의 山西省 代縣이다. 산서는 소현성이나 소운성의 여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다. 소운명이 산서에 갔을 때 이미 소운현이 구주어사로서 거쳐 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두 사람을 清明兩士로 칭송한다. 작자는 소운명이 산서에 간 것이 소부 인물들 중 두 번째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즉흥적으로 지명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다양한 지역이 등장하도록 의도적으로 안배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밝히는 것이다.

<소현성록>은 하남의 변경을 주된 배경으로 하면서, 호남·호북, 강서, 절강, 운남, 산둥, 안휘, 사천, 하북, 산서 등 여러 지역을 고르게 등장시켰다. 각 지역의 특색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서사를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작자가 지리적 상식과 공간 감각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자가 북송대에 거란과 대치하면서 군사적으로

31) 이대본은 안문현으로 되어 있으나 안문현의 오기인 듯하다.

중요했던 순간이나 삼관을 거론한 것을 보면<sup>32)</sup> 일반적인 상식만으로 작품을 꾸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현성록>의 작자가 참고한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역사서도 보았겠지만, 『楊家將演義』나 『北宋志傳』(북송연의) 같은 소설 독서 경험이 작품 내 지리적 배경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33)</sup> 이 두 작품은 북송과 거란의 전쟁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 만큼, 변경으로부터 황하 이북의 국경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따라서 『양가장연의』나 『북송지전』을 통해 익숙해진 순간, 황하, 삼관 등의 지명이 자연스럽게 <소현성록>에 등장한 것이다.

### 3. <소현성록>의 역사 인식

<소현성록>은 북송 太祖로부터 仁宗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태조 武德皇帝는 소광과 같은 세대이고, 소현성은 태종 원년에 급제하여 승상을 지내고 眞宗 연간에 강릉후(江陵侯)에 봉해졌다. 소현성의 아들들 중 연장자들은 주로 태종 연간에 급제하였고, 연소자들은 진종 연간에 급제하였다.

<소현성록>에는 정치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등장하기 때

32) 불쑤의 평성의 턱하를 한유하야 구궤 승경을 흉똥의 거두어 녀코저 흐읍느니 근간의 북녘 병을 동티 아니코 묘당이 평안하니 석 들 말미를 어더지이다 (이대본 권지구 14면)

작품 내에 北遼(거란)와의 전쟁이 서사화 되지는 않지만, 소현성의 언급을 통해 볼 때 작자는 북송대의 국제관계를 숙지하고 있었다.

33) 정길수는 송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삼은 점, 石守信, 趙普, 寇準, 七王, 八王 등을 조역으로 등장시킨 점, 양문광(양부인의 아버지)이라는 이름 등을 들어 <소현성록>이 『양가장연의』에서 소재를 취재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문에, <소현성록>과 <창선감의록>을 비교하여 <소현성록>의 작자가 역사에 무지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sup>34)</sup> 이 견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첫 번째 이유는 축약과 오류가 많은 규장각 21권본을 텍스트로 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현성록>의 역사 지식이 단편적이면서도 정확하여, 결코 무지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소현성록>과 <창선감의록>은 역사 및 현실을 대하는 기본적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소현성록>의 황후들

<소현성록>에는 여러 황후(및 태후)가 등장한다. 작자가 정확한 시간을 밝혀가며 서술하지 않았고, 미래의 일을 앞당겨 말한 것도 있어 황후들의 관계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sup>35)</sup> <소현성록>의 황후들에 대해서는 선행 논의에서<sup>36)</sup> 사실과 허구가 밝혀진 바 있으나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역사	작품
杜太后	太祖와太宗의 모친. 昭憲太后 태조 연간에 사망.	두태후. 태종 연간에도 생존. 등장하지는 않으나 명현공주의 일에 가끔 간섭.
符皇后	太宗 황후.懿德皇后. 태종이 즉위하기 전에 34세로 사망. 추봉.	부황후. 태종 황후. 명현공주의 모친. 명현공주 사후까지 생존.
郭皇后	眞宗 황후. 章穆皇后. 진종이 즉위하기 전에 32세로 사망. 추봉.	장황후. 진종 황후. 진종 연간에 사망.

34) 정길수, 앞의 논문.

35) 규장각 21권본의 필사자도 이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36) 박영희, 앞의 논문.

	역사	작품
劉皇后	眞宗 황후. 章獻明肅皇后. 李宸妃 소생의 仁宗을 빼앗아 자기 아들로 삼음. 진종 말년부터 정권을 장악, 인종 초에 수렴청정.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 외조부 집에서 자람. 15세에 韓王府(한왕은 이후의 진종)에 들어갔으나 진종 유모의 반대로 진종과 가까이 하지 못했음. 진종 즉위 후에 다시 궁에 들어가 美人, 修儀, 德妃를 거쳐 황후가 됨. 재상 寇準이 폐위시키려 했으나 실패함.	유황후. 진종 황후. 인종의 친모. 소현성의 養妹 윤부인과 유학사의 딸. 광후 사후에 황후로 간택됨. 모친 윤부인이 소부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소가 자손을 두호하지만, 소부를 외가로 인정하지는 않음. 소귀비(소황후)의 시어머니.
郭皇后	仁宗 황후. 尙美人과의 분쟁으로 인종의 목에 상처를 내자 재상 呂夷簡과 환관 閻文應이 폐위시킴. 淨妃로 삼아 長樂宮에 거처하게 함. 인종이 회궁시키려 하자 광씨가 정식 복위를 요구함. 복위되기 전에 갑자기 사망. 추복.	광황후. 인종 황후. 양미인·상미인의 일로 투기하여 인종의 목에 상처를 내자 재상 여이간과 환관 너문웅이 폐위시킴. 정비로 삼아 장녕궁에 거처하게 함. 인종이 몰래 부르자 광씨가 정식 절차를 요구함. 사망 후 추복. 인종과 광후의 화해는 인종이 소후의 덕에 감동한 때문임.
소황후	없음.	소황후. 인종 황후. 선인황후. 소현성과 석부인의 막내딸. 귀비였다가 광후가 폐위된 후 황후로 책봉. 상미인을 다시 데려와 감화시킴. 태자와 공주를 낳음. 45세로 사망.
曹皇后	仁宗 황후. 慈聖光獻皇后. 樞密使 曹彬의 손녀. 광후가 폐위된 후 간택되어 황후로 책봉됨. 經史를 섭렵하여 지략이 있고 飛白書를 잘 썼음. 인종이 무자하여 종실의 아들 英宗을 데려다 궁중에서 양육하였는데 황후가 주밀하게 보살핌. 인종 사후 英宗 연간에 황태후, 神宗 연간에 태황태후가 되어 권세를 누렸음. 王安石 變法에 반대하고 舊法黨을 옹호함.	조황후. 인종 황후. 귀인으로 있다가 소후 사후에 황후가 됨. 외모는 광후보다 못하고 덕이 없음. 자신의 소생 위왕으로 태자를 삼고자 함. 오라비 조국구가 사족의 치를 곱탈하여 포증에게 죽게 되자 직접 찾아가 구하려 하다가 거절당함. 이 두 가지 일로 인종에게 대책을 받음.

역사 기록과 작품 내 서술을 비교해 보면 작자가 실제 사실을 몰라서 잘못 썼거나 꾸며냈다고보다는 실제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허구화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황후는 이신비의 아들 인종을 빼앗아 자기 아들로 삼아 모자의 천륜을 끊고, 진중 말년과 인종 대에 권력을 휘둘러 후대의 평가와 이미지가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과감하게 유후의 不德을 덮고, 소부와 밀접한 관계의 우호 세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후의 외가가 사실상 소부인데도, 황후의 공식적 족보에 소부가 올라가지 않고 그로 인해 두 집안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섭섭하게 언급하고 있다.<sup>37)</sup>

한편 조황후는 복송의 황후 중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인데도, 가공의 인물인 소황후를 높이기 위해 크게 깎아내렸다. 외모는 곱후보다 못하고 덕성은 소후보다 못한 것으로 그렸으며, 존재하지 않는 조황후의 아들 위왕을 등장시켜 조후가 친생자를 위해 태자를 참소한다고 하였다. 조국구 이야기는 원래 八仙 중 한 사람인 曹國舅(大國舅)와 그 동생(小國舅)에 관련된 일화인데,<sup>38)</sup> <包公演義>에서는 包拯을 중심인물로 삼아 그의 강직성과 공정함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개작하였다.<sup>39)</sup> <소현

37) 원 부인은 승상 은덕을 닦지 못하고 혼 가문의 이시매 칭호를 동귀로 하고 태부인의 모녀지의로 하나 그 조식들의게 다드라는 골육의 친이 아니오 또 태부인씩 양녀로 너덜흔든 세 업스니 뉴성 등이 외친니소후야 은인으로 홀디언딩 절친의 은근흔 정은 업스니 소시 제성은 본디 관인흔 고로 더욱 극진이 스촌을 일크리디 뉴황후와 황후의 아이 문언박의 체 다 소성 등을 즈란 후는 피하고 보디 아니터니 황휘 즉위 후는 너의 족부를 국가의 알외매 더욱 소개 서의히디 (이대본 권지십 124 면)

38) <東遊記>에서는 조국구가 조태후의 동생이며, 동생 曹二가 국친임을 믿고 여러 악행을 저지르자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것을 피해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도를 닦게 되었다고 하였다. 吳康 主編, 『中華神秘文化辭典』, 海南出版社, 2002, p.146. 참조.

39) 明 完熙生 編, 朴在淵 校點, 『包公演義』, 학고방, 1995, pp.85~88. 『포공연의』에서는 조국구 형제가 모두 포중에 의해 체포되고, 조후와 인종이 각각 개봉부로 방문하여 두 사람을 살려줄 것을 청하지만 포중이 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小國舅은 참형되고 인종의 대사령으로 大國舅만 살아남는다. 물론 이러한 삽화의 연원은 <포공연의>가 아니라 元代의 강창문학이다.

성록>은 <포공연의>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도 40) 조후 혼자만이 포증을 방문한 것으로 바꾸어, 예교에 어긋난 행동으로 국모의 체면을 잃은 조후를 비판하였다. 41)

이에 비해 폐위된 광황후 사건은 역사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광후 폐위에 변조가 가해지지 않은 것은 <소현성록>의 서사 전개상 바꿀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황후가 되기도 전에 죽은 부씨를 명현공주의 모친으로 설정하고 부정적으로 그린 데에는 야사나 민간전설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이 포의일 때 부씨가 방울을 던져 구혼했다는 이야기는 <소현성록> 작자의 직접적인 창작은 아닐 것이다. 42) 부씨는 後周의 魏王 符彥卿의 딸로, 두 명의 언니는 後周 世宗의 황후가 되었고 자신은 晉王 (후의 唐 太宗)의 비가 되었다. 더욱이 세종의 첫 번째 황후는 李守貞의 아들과 혼인했다가 세종에게 재가한 것이어서 이 자매들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생겼음직하다.

<소현성록>은 허구적인 소황후를 만들어 놓고 <옥환빙>이 소황후를 빼뜨리고 광후에서 바로 조후로 넘어갔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옥환빙>의 황후에 대한 서술은 역사에 충실한 것이다. <옥환빙>에 황후가 등장하는 이유는 선혜공주(태종 공주)의 딸 이씨와 옥경공

40) <소현성록>의 작자는 <포공연의>를 읽고 작품 창작에 활용한 것이 확실하다. 정길수는 <소현성록>의 요괴퇴치와 眞假 다툼 삽화가 <포공연의>로부터 도입되었다고 보았다.

41) 국문본 <포공연의>(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에는 조국구의 이야기가 없다. 원작의 100회 중 81회를 골라 번역했기 때문이다. 박재연 교주, 『포공연의』 전문대 중한번역 문헌연구소, 1999. 참조

42) 금방울은 아니지만 비단공을 던져서 신랑을 구하는 擲繡毬招婿는 중국에 널리 알려진 풍속이다. <西遊記>에서는 요괴가 공주로 변하여 삼장법사를 잡아먹기 위해 拋繡球를 행한다. 明 吳承恩, 『西遊記』, 93회. 참조.

주(진종 공주)가 설경윤에게 시집가기 때문이다. 선혜공주나 옥경공주는 모두 허구적인 인물이지만, 설경윤의 아버지 薛奎는 眞宗, 仁宗 연간에 여러 관직을 역임한 실존인물이다. <소현성록>에 강주인으로 소개되는데, 실제로 絳州人이다. <옥환빙>은 실존인물 설규를 등장시켜 작품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허구적인 아들<sup>43)</sup> 경윤을 주인공으로 삼아 서사를 전개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필자는 본전 <소현성록>과 별전 <소씨삼대록>을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소현성록>이 <옥환빙>의 파생작이라고 보았다. 최근 정길수는 본전 <소현성록>과 별전 <소씨삼대록>을 분리하여 파악하면서, 본전이 지어진 뒤 파생작 <옥환빙>이 나오고 그 뒤에 별전이 나왔을 가능성을 개진하였다. 그런데 본전 <소현성록>에는 설규나 <옥환빙>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이나 암시도 없으며, <옥환빙>에는 소송상이 등장할 뿐 '소현성'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옥환빙>이 본전 <소현성록>의 뒤에 나왔다 하더라도 파생작이 아니라 독립적인 작품임이 분명하다. <소현성록>에서 빌려온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옥환빙>과 본전 <소현성록>이 인기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별전 <소씨삼대록>이 본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옥환빙>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소현성록> 본전과 별전을 구별하여 본다면, 본전은 <옥환빙>의 모방작이 될 수는 있지만 파생작은 아니며, 별전 <소씨삼대록>은 <옥환빙>의 파생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태종의 부도덕성

<소현성록>에는 현실 정치 즉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술이 거의 없지만, 드물게 時事를 거론하는 대목이 있다.

43) 실존인물 설규는 아들이 없었다. 『宋史』 권286.

이적의 상이 태조 태조 덕슈를 죽이시니 참정이 차아탄왈 만승의 괴업이 비록 크나 지친골육 잔해함을 풀납기터 하니 데 곳 태조의 태조로 타일 덕을 니을 재라 그 죽으미 명명히 알니로다 불승흔히되 도당의 구준 팔왕 등도 홀일이 업는디라 드디어 야반축영스도 즈시 듯고 문득 마음을 세상의 머물디 아니코 벼슬을 불의에 기디 못하여 소임의 나아가나 범스를 동관의게 미리 보내고 동일토록 입을 여러 시논과 정스를 다스리디 아니하니 비록 벼슬이 높고 명망이 등하나 과연 스키 가운데는 일흠이 업스니 그 활연청아함을 가히 알니리라 (이대본 권지사 50면)

정길수는 본전 <소현성록>에서 이 단락의 서사적 기능이 없다고 보고, 태종의 부정적 면모를 부각시켜 본전과 별전 사이에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별전 작자가 본전에 무리하게 삽입한 대목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대목이 명현공주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러나 서사적 기능의 부재는 규장각 21권본의 축약 탓이지, 원작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배경 지식을 요하므로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 태조는 후주 세종의 계승자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황제가 될 수 있었다. 태조의 어머니 두태후는 송조에도 똑같은 불행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태조에게 황위를 동생에게 물려주라고 유언하였다. 과연 태조는 맹세를 지켜 태자 德昭를 두고 동생 태종에게 황위를 물려주었다. 두태후의 유언대로라면 태종은 다시 동생 光美(태종 즉위 후 廷美로 개명)나 조카 德昭에게 황위를 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아 德昭는 자결하고<sup>44)</sup> 廷美는 유배되어 죽었다.<sup>45)</sup> 황위는 태종의 셋째

44) 太平興國 4년(979)에 덕소는 태종을 따라 幽州 정벌에 나갔는데, 전쟁 중에 태종이 잠시 보이지 않자 신하들 중에 덕소를 황제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태종이 이것을 알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유주 정벌에 실패하고 돌아온 뒤 태종은 논공행상을 하지 않았다. 덕소가 이에 대해 건의하자, 태종은 노하여 “네가 황위에 오르기를 기다

아들 眞宗에게로 돌아갔다.

<소현성록>에서 거론한 ‘태조 태자 덕수’는 宋 太祖의 태자 德昭이다.<sup>46)</sup> 『송사』에서는 덕소가 자결했다고 했지만, 소현성은 덕소가 다음 보위를 이을 인물이기 때문에 태종에게 살해되었다고 추측한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夜半燭影事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하는데, 야반촉영사란 태종이 태조를 시해했으리라는 의혹이다.<sup>47)</sup> 소현성은 태종이 형 태조와 조카 덕소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갖게 된 후,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時難과 政事를 同官에게 미루고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나 관직에서 물러나지도 않는다.

정길수는 소현성의 관직 생활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 서사 단락에 기능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대본에는 규장각 21권본에 생략된 서술자의 논평이 있다. 서술자는 소현성이 군주의 도덕성을 회의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무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서에 이름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작자는 관직과 위망이 당대 최고인 소현성의 이름이 사기에 오

러 스스로 하라.”고 꾸짖었다. 덕소는 물러나서 자살했고, 태종이 그 시신을 안고 후회했다. 『宋史』 권244.

45) 廷美는 太平興國 7년(982)에 반역의 음모가 있다는 무고로 체포되어 房州에 안치되었다가 雍熙 원년(984)에 죽었다. 『宋史』 권244.

46) 덕수는 덕소의 오기이다. 德秀는 송 태조의 장자로 일찍 죽었다. 덕소는 태조의 차자이다.

47) 태조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晉王(후의 태종)이 萬歲殿으로 문병을 갔다. 태조가 태종에게 후사를 부탁했으나 모시는 이들은 모두 물러나 있어서 듣지 못했다. 다만 멀리 촛불 그림자 아래 태종이 일어서려고 하거나 혹은 避遜하는 모습이었고, 태조가 도끼를 땅에 던지고 큰 소리로 진왕에게 ‘잘 하거라’(好爲之)고 했으며 마침내 띠를 풀고 잠들어 코를 골았는데 그날 五更이 되기 전에 죽었다. 夜半燭影事는 史書로는 南宋의 학자 李燾가 편한 『續資治通鑑長編』에 처음으로 실렸고, 거의 변형 없이 <북송지전>과 <양가장연의> 등에 수용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태종이 태조를 시해하려 했기 때문에 태조가 도끼를 던졌으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르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자 했고, 그 계기를 덕소의 죽음에서 찾은 것이다.

덕소의 죽음은 일차적으로 소현성이 실존인물임을 강변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드러나는 태종의 부도덕성과 이에 대한 소현성의 반응은 현실 정치에 대한 소현성의 관점, 나아가 <소현성록>의 작품적 성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 태종의 도덕성은 명현공주의 등장으로 다시 거론된다.

쇼지 스스로 명심하되 천창이라도 먹음이 어딜면 동낙하고 귀인이나 심디 부정하면 동낙디 아니려 하옵노니 하물며 공주는 석량의 먹이오 일회 거동이니 님군과 동성을 죽이려 하는 문호의셔 상당 하여시니 내 만일 후디 하야 그 쓰디 더욱 방조하면 반드시 쇼조를 죽일 인물이니 처음의 멀리 흠만 갖디 못하니이다 부인이 아연양구의 칙왈 신지 국록을 먹으며 님군을 훼방하미 줄은 난신이라 네 엇디 망녕된 말을 하야 황야를 욱하리오 (이대본 권지육 37~38면)

소운성이 명현공주와 혼인한 후 십여 일만에 석부인에게 하는 말이다. 소운성은 명현공주가 '임군과 동생을 죽이려 하는 문호 출신'이라고 지목한다. 태종이 태조와 정미 등을 살해했거나 적어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전제할 것이다. 소운성은 명현공주에게 아직 드러난 과실이 없음에도,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석부인은 운성의 언급에 아연하여 국록을 먹으면서 군주를 비난하는 것은 亂臣이라고 질책한다.

명현공주 잠간 시셔를 아난디라 문득 조부무인 하야 내 드라 널오디 계속과 부마 의논이 지극 올흐시나 네는 어딘 이 이셔도 사오나오 니 만흐니 당

태종이 소날왕비를 취하며 건성 원길을 사갈하니 엇디 무상치 아니리오 금세에도 다시 잇는가 계속피 못느이다 제성이 흠신답알 공주의 고건이 올흐 신디라 당태종 소날왕비 취흐몬 인면슈심어니와 건성 원길 죽이른 스를 위흐미니 구투여 그르디 아니니이다 하니 원니 제쇠 다 찰심공손흐고 총민영호흐니 범스를 무심히 흐는 일이 업슨 고로 이에 험의예 간섭흐야 이리 니르나 본심이 아니어늘 공췌 또 의괴를 비양흐여 우회를 채피 곱오더 우리 성상과 태좌 동흥흐시니 외인이 널오더 본은 태조 덕턱으로 득턴해라 하니 이 엇디 우읍디 아니리오 흐물며 우리 황에 농흥호보는 턴신이라 다 아는디라 엇디 딴교역의 가 제장을 부촉흐여 위턴즈흔 태좌 득턴하흐미 이시리오 제성이 희고히 너겨 흐갓 유유흔 썩롭이라 운성이 격분흐물 이괴디 못흐야 문득 정식왕 즈고로 국가 티란홍망은 부인 너즈의 알배 아니라 흐물며 태조 황에 협마역 향괴와 대쪽의 글과 딴교역의 가 낭일이 도도며 오성이 모도 물보고 제장이 인심을 조차 황포를 밧드려 드리니 엇디 부촉 흐시미리오 공췌 네의와 인스를 모르시고 선대를 모욕흐며 조종턴하를 간교히 어든 고드로 미되시니 이럴던데 태조는 분명히 모르신 배니 성상이 제장을 브촉흐미로 소이다 공췌 결연대로왈 부매 말을 간대로 하니 이 므슴 도리뇨 무단히 황상을 모함흐니 만일 다스릴던데 덩형을 도망티 못흐리라 (이대본 권지육 70~72면)<sup>48)</sup>

이번에는 명현공주가 스스로 태종의 도덕성 문제를 꼬집어낸다. 명현은 唐太宗이 형인 태자 建成과 동생 元吉을 죽이고 원길의 비 楊氏를 취한 것을 들어 도덕성을 시비한다.<sup>49)</sup> 蘇生들은 당 태종과 건성·원길의 일이 곧 송 태종과 덕소·정미 등의 일로 치환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48) 협마역은 태조가 출생한 洛陽 夾馬營을 가리키며, 딴교역은 제장들이 조광원에게 黃袍를 만들어 올리고 황제로 추대한 陳橋驛을 말한다. 당시 진교역에 두 해가 뜨는 상서가 있었다고 한다. 『宋史』 권1.

49) 양씨를 소날왕비라고 한 것은 원길이 巢刺王으로 추복되었기 때문이다. 『舊唐書』 권3.

혐의를 피하기 위해 당 태종이 형제를 죽인 것은 대업을 위해서이므로 그르지 않다고 답변한다. 실제로 명현 역시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소생들을 떠보기 위해 질문한 것이다. 태종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소생들의 발언에 의기양양해진 명현은 본심을 드러내어 송 건국의 천명은 태조가 아니라 태종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명현의 견해대로라면, 태종은 태조로부터 덕소에게 갈 황위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황위를 잠깐 형에게 양보했던 셈이 되며, 덕소나 정미의 죽음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진다.

이와 같은 명현의 논리에 소운성은 크게 반발한다. 태조야말로 천명을 받고 인심을 얻어 즉위한 眞天子이며, 만약 태조의 즉위에 간교한 모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태종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운성은 태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종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한다. 극단으로 치닫는 운성과 명현의 대립을 중지시키기 위해 석부인은 소운성이 취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외당으로 내보낸다.

소현성은 이 일을 전해 듣고 운성을 불러 타이르는데, 태종의 정당성을 옹호하여 운성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태종의 부도덕성은 기정사실로 동의하지만 신하가 되어 그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한다.<sup>50)</sup> 명분상으로는 이미 맺어진 군신 간의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머리 없는 귀신이 되는 화를 피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 태종과 황실에 대한 소부의 최종적 입장이다.

소현성은 누구보다도 도덕과 예교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가장

50) 초언이 대니에 드러가면 상의 드러시미 손뒤헐 7톨디니 너와 내 머리 업손 귀신이 되기를 면호리오 더 공주의 무식흔 말이 입의 한심커놀 네 엇디 그 말을 족수 호야 도로혀 7톤 뉘 되리오 호몰며 너와 내 턴수롤 도망티 못 호야 입의 痘신이 되고 쏘 그 녹을 먹으며 북면호야 섬길딘대 엇디 감히 그 남군의 시비 룰 구외에 내며 막읍의 족디 못흔 일이 이신들 남군을 원망 호랴 (이대본 권지육 73면)

큰 부도덕성, 즉 최고 권력의 비행 앞에서는 침묵한다. 그는 황제의 윤리적 결함을 통감하면서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태종의 잘못을 간하여 규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지도 않는다. 대신 도덕성의 추구와 권력 추수 간의 모순을 천명으로 합리화하며, 황제의 부도덕에 대한 불만은 개인적 태업으로 은밀하게 표출할 뿐이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 타협이며 자기기만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의 작자는 이러한 소현성의 태도를 豁然清雅하다고 힘써 찬양한다. 작자의 언급은 자기당착적인 변명이다.

그렇다면 <소현성록>의 작자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무리를 하는 것일까? 태종의 윤리적 문제를 보여주는 인물이나 사건들은 어차피 작품에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도 않는다. 명현공주의 투기와 무례는 굳이 태종이 아니더라도 부황후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게 기술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독자층이 있어서, 그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자가 태조와 덕소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여 태종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윤리적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소부가 황실에 대해 윤리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현성록>에서 소부의 도덕과 영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가문이 소부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소현성록>의 일관된 주장이다. 황실도 예외가 아니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실이 윤리적으로 완벽하기까지 하다면, 소부가 황실의 우위에 설 수 없고 또한 황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사라진다. 때문에 황실은 윤리적 결함을 가진 문호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품에서 다루는 세 황제 중 가장 윗대인 태종 때에 가장 큰 윤리적 문제를 부각시킨 것이다. 진종대에는 이

러한 문제가 사라지고, 인종대에 이르면 황제가 성군으로 그려진다. 왜냐하면 진종은 소부와 친밀한 관계의 칠왕이고, 그 황후는 윤부인의 딸이며, 인종은 윤부인의 외손자, 그 황후는 소현성의 딸이기 때문이다. 소부의 윤리성을 통해 황실의 비도덕성은 희석된다.

### 3) 진종의 유산

진종은 작품 전반부에 팔왕과 함께 등장했던 칠왕이다. 칠왕, 팔왕이라는 명칭 때문에 두 왕은 모두 태종의 아들로 칠왕이 형, 팔왕이 아우라고 생각하기 쉽다.<sup>51)</sup> 그러나 <소현성록>은 칠왕이 황제의 태자이고, 팔왕이 황제의 친질이라고 분명히 밝혀 놓았다.<sup>52)</sup> 즉 칠왕만이 태종의 아들이고, 팔왕은 조카인 것이다. 칠왕과 팔왕은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에도 등장한다.<sup>53)</sup> 왜 이들에게 七, 八이라는 숫자를 붙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에서도 칠왕을 후의 진종으로, 팔왕을 칠왕의 사촌형으로 그린다. 팔왕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는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양가장연의>에서는 태종의 형의 아들 德崇이라고 하고,<sup>54)</sup> <북송지전>에서는 팔왕이 사후에 魏王에 봉해지고 諡號가 懿라고 하였다.<sup>55)</sup> 그런데 역사상 德崇은 태종의 장

51) 이 때문에 박영희는 팔왕이 태종의 제8자 恭肅王이라고 하였다.

52) 칠왕은 태종의 아들이니 이곳 태자요 팔왕은 태종의 친질이라 위인이 현명하고 지덕이 겸덕하니 (이대본 권지이 36면)

53) 정길수의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다. 정길수는 진종이 태종의 일곱 번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칠왕이라는 명칭 역시 허구라고 보았다. 칠, 팔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제의 서열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54) 國號大宋 改年號建隆元年 封三代爲皇帝 封母杜氏爲皇太后 封妻王氏爲皇后 封子德昭爲皇太子 德芳爲梁王 封兄子德崇爲燕王 乳名大哥 人遂稱爲八大王 最有才能 人皆敬服 封弟光義爲晉王 光美爲秦王 (明 佚名 編著, 武又鳴 点校, 『楊家將演義』, 中華書局, 2001, p.2)

자 漢王 元佐(初名 德崇)이며, 魏懿王은 바로 자결한 태종의 태자 德昭 여서,<sup>56)</sup> 결국 팔왕은 덕소라는 실존인물을 변형한 가공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에 등장하는 허구적인 인물 팔왕이 <소현성록>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소현성록>이 이들 작품을 읽고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은 <양가장연의> 등과 달리 팔왕을 황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로 그리지 않는다.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에서는 태종이 임종할 때 나이 순서에 따라 팔왕에게 전위하려고 하지만 팔왕이 태자가 장성했다는 이유로 사양하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sup>57)</sup> 태종은 팔왕에게 전위하고자 했으므로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 때문에 이 두 작품에서는 덕소와 정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소현성록>에서는 이미 덕소와 정미의 죽음을 들어 태종의 부도덕성을 공격했으므로, 새삼 팔왕을 통해 태종의 도덕성을 수습할 필요가 없다.

<양가장연의>나 <북송지전>에서 팔왕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칠왕에게 황위를 양보하여 송 황실의 윤리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양가장의 막강한 비호세력으로서 양육량과 운명을 같이 하는 전쟁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에서는 팔왕이 일개 조역으로 전락한다. 팔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석부인을 증매한 것과 형씨와 소운성의 재결합을

55) 追封八王爲魏王 諡曰懿(明 熊大木 著, 陳繼儒 編次, 『南北宋誌傳』下, 上海古籍出版社, 1994, p.877.)

56) 필자가 참고한 <남북송지전>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按通鑑 八王乃德昭也 初封武功郡王 因太宗久不行太原之賞 德昭以爲言 帝大怒曰 待汝自爲之賞未晚也 德昭退而自刎 時在太平興國四年 此小說終於眞宗之朝 舛誤甚矣 因表出而爲智者考焉. 위의 책, 같은 곳.

57) <양가장연의>에서 칠왕이 王欽의 계교에 따라 팔왕을 독살하려 하는 것도 팔왕이 황위를 계승할 인물이기 때문이다.

황제에게 청한 것이다. 팔왕은 소현성과 같이 어울리면서 항상 감탄해 주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는다. 따라서 <소현성록>은 주인공을 효과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 <양가장연의> 등으로 국내 독자들에게 이미 지명도가 높은 팔왕이라는 인물을 차용했고, 중국 작품에서 팔왕이 가지는 의미는 목살했다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은 팔왕 이외에도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허구적 사건 하나를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진종의 유산이다.

이적의 나라히서 진종황태 간신 왕흠약을 전권하야 임의 인통계종 하시매 장춧 위부 동대의 유산하시 대노의 빠이시니 사디이 위티흔디라 도당의 두어 대신이 덕회엿고 다 님금을 호종하야 가시니 소승상이 태후 황후와 태조를 보호하야 왕성의 이서 각처의 격서를 던하야 근왕하라 하고 일변으로 십만병을 도발하야 보내고 정히 도당의서 정스를 의논하더니 홀연 보하디운 남국이 반하야 교지를 티고 드러오니 괴미 심히 급하디 혼대 (이대본 권지 십 135면)

<소현성록> 서술만으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양가장연의>와 <북송지전>에 따르면, 진종 때 王欽이라는<sup>58)</sup> 간신이 거란의 태후와 내통하여 진종을 위협에 빠뜨릴 음모를 세운다. 이들은 거란과 접경지대인 魏府 銅臺에<sup>59)</sup> 겨울에 꽃이 피고 연못의 물이 술로 변하는 이적이 나타났다고 꾸며 진종이 친행하도록 한다. 진종은 寇準과 八王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행에 나섰다. 魏州城에서 거란[遼]의 대군에게 포위당하고, <양가장연의> 등의 실질적 주인공인 楊六郎 이 군대를 이끌

58) 王欽은 허구적인 인물이다. <소현성록>에서는 왕흠을 실존인물 王欽若으로 바꾸었는데, 왕흠과 왕흠약을 동일인물로 착각한 듯하다.

59) 위부 동대는 삼국시대 조조가 지은 銅雀臺를 말하며, 지금의 河北省 臨漳縣에 있다.

고 가서 진종을 구하고 거란군을 대파한다.

즉 <소현성록>은 진종이 魏州城에서 大遼에게 포위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종 구출과 거란과의 대전이 서사화될 차례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에는 이 군담이 등장하지 않는다. 팔왕이 십만 대군을 끌고 진종을 구출하러 가고, 소현성은 매마침 교지(북송 당시 越詔, 지금의 베트남)를 침공한 운남(북송 당시 大理, 지금의 운남성)을 정벌하러 떠나기 때문이다. 운남의 반란은 완전한 허구이다.

그런데 하필 북쪽에 적군에게 포위된 황제를 두고, 소현성은 왜 정반대인 남쪽 방향으로 가는가? 이러한 현상은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회피하려는 <소현성록>의 성향에 기인한다. 진종의 유산과 포위는 허구이지만, 계속된 거란과의 전쟁은 북송 초기 가장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자 위협이었다.<sup>60)</sup> 거란을 주적으로 하는 <양가장연의>나 <북송지전>은 아무리 왜곡과 변형이 심하고 신마전·도술전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소박한 문제의식, 현실적인 패배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실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에서나마 승리하여 심리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가장연의> 등은 그 형상화 수준의 고하를 떠나서 치열하게 역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지로 역사를 변혁하려는 소설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은 역사에 동참하거나 주도하는 일에 무관심하며 무기력하다. <소현성록>의 관심은 주인공의 도덕성이 빛을 발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정치와 역사 현실로 깊이 들어갈수록 주인공이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고 관찰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소현성록>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자 하며, 자발적으로 영역을 자운산으로 축소시켰다. 조정에서

60) 결국 북송은 진종의 친정으로 거란과 澶淵之盟을 맺고 강화의 대가로 歲幣 30만을 지급함으로써 평화기에 진입한다.

경륜을 펼치기보다 규방을 중심으로 齊家에 치중하는 것, 정치적 대립은 설정하지 않으면서 요괴 퇴치를 즐기는 것 역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계에서 적대세력과 맞서 싸울 투지가 없기 때문이다. 소현성에게는 그의 도덕성이 남김없이 실현되는 자운산 소부와, 그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보고 두려워해주는 요괴가 필요하다.

<소현성록>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쟁인 거란과의 군담을 거부하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이다. 현실의 무게와 복잡성을 지탱하려는 의지가 없는 <소현성록>은 완전한 허구인 운남 군담을 창조하고 그 속으로 진입한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진종의 유산을 거론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현성록>이 <소현성록>다워진다. <소현성록>은 현실과 거리를 두려 하지만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말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상정해야만 <소현성록>의 좌표가 의의를 갖는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역사 현실과 일말의 관련도 없는 허구였다면 <소현성록>의 거리 두기 역시 허탈해지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은 스스로 무엇으로부터 철수하는지, 무엇을 외면하는지를 밝힌다. 위부 동대의 유산은 <양가장연의>나 <복송지전>을 향해 열려 있다. <소현성록>은 그 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한다. 여기에 <소현성록>의 독자성이 있다.

역사로부터의 거리 두기와 도성으로부터의 거리 두기는 차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역사와의 거리 두기가 실제 역사 및 <양가장연의>, <복송지전> 등으로부터의 거리 두기라면, 도성과의 거리 두기는 도성 내를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동시대 소설에 대한 거리 두기로 볼 수 있다. <소현성록>은 멀리는 <양가장연의>나 <복송연의>, 가까이는 <창선감의록>처럼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역사의 視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 또한 도성 내에서 세속적인

삶을 즐기는 당대의 소설들을 비판하며 윤리적 긴장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그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장르의 소설이 되고자 하지는 않았다. <소현성록>은 거리를 조정하여 이상적인 지점을 제시하고자 했을 뿐이며, 그 거리가 <소현성록>을 특징짓는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소현성록>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소현성록>의 작자는 북송대의 역사와 지리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작자가 <소현성록>과 역사 현실을 밀접하게 결부시켜 구성하지 않은 것은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향의 차이 때문이다.

2. <소현성록>이 역사를 완전히 도외시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 사건을 기피하고 허구적인 세계로 파고드는 것은 작품이 추구하는 소현성의 도덕성이 정치적 공간, 역사적 시간 속에서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소현성의 도덕성은 소현성의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는 자운산 소부 또는 소현성의 신성성이 통용되는 자연 공간에서만 완미하게 실현된다.

3. <소현성록>은 작품의 창작 방식에서 역사와 거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내에서도 도성으로부터, 세속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일반적인 윤리 수준으로부터 끊임없이 거리를 두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소부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한다. 작품이 의식하는 도성, 세속, 일반은 곧 동시대의 다른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거리 두기는 곧 <소현성록>의 차별화 전략이다.

## 참고문헌

<소현성록> 이대본

<소현성록> 규장각21 권본

『舊唐書』 권3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宋史』 권1, 권244, 권286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박재연 교주, 『포공연의』,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1999.

明 完熙生 編, 朴在淵 校點, 『包公演義』, 학교방 1995.

明 佚名 編著, 武又鳴 點校, 『楊家將演義』, 中華書局, 2001.

明 熊大木 著, 陳繼儒 編次, 『南北宋誌傳』 下, 上海古籍出版社, 1994.

譚其驤 主編, 『簡明中國歷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1985, pp.1~125.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이대본과 서울대21 권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04, pp.1~98.

류재현, 『중국역사지리』, 문학과지성사, pp.66~72.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250.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1995, pp.319~361.

박지원, 「渡江錄」, 『國譯 熱河日記』 1, 민족문화추진회, 1968, p.52.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여성문학학회, 1997, pp.127~154.

변진한, 「고전소설의 脫有機性에 대한 연구-<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2003, pp.1~83.

손세관, 『깊게 본 중국의 주택』, 열화당, 2002, p.44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단위담의 전개양상과 결합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pp.1~237.

吳康 主編, 『中華神秘文化辭典』, 海南出版社, 2002, p.146.

윤장섭, 『중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320.

魏嵩山 主編,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廣東教育出版社, 1995, pp.1~1359.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 규장각 소장21 권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pp.345~367.

-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소, 1995, pp.31~73.
-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pp.1~200.
-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pp.1~254.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장편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293~327.
-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pp.29~63.
- 지연숙, 「<여와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pp.1~200.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8, pp.1~320.
-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pp.1~535.
-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연구 -<사씨남정기>, <장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6, pp.1~170.
- 何本方·李樹勸·胡曉昆 主編, 『中國古代生活辭典』, 沈陽出版社, 2003, p.517. p.542.
- 홍순민, 『우리 궁궐 이야기』, 청년사, 1999, pp.120~123.



ABSTRACT

The Spatial Construction and Historical Recognition in *Sohyeonseongrok*

Chi, Yeon-Sook

This paper examines the time and space backgrounds of *Sohyeonseongrok*. It examines the spatial background of *Sohyeonseongrok* on the sides of the location of So's house, its internal space, and the characters' action traces. The location of So's house, 40 ri distant from the capitol city, spatially expresses the dual attitude to intend to the mundaneness, the reality, and the power, all of which are symbolized by the capitol city, while keeping some distance from it. In the space of So's house, Mrs. Yang's authority is concretized by 'Chwiseongjeon,' meaning a building where stars have got together,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thic standard that the novel pursues is shaped being associated with the spatial division of the house (the external building, the middle building, and the internal buil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s' action traces, the novel uses the territory of North Song evenly without overlapping, which reflects the situation at that time when North Song confronts Georan.

As the time background of *Sohyeonseongrok* is just a part of history, we check the historical facts appearing in the novel. Though the historical facts are mentioned in fragments, we can find out that the author not only has deep knowledge of the history of North Song, but also is fully aware of *Yanggajangyeoneui* and *Buksongjijeon*. *Sohyeonseongrok* does not try to connect itself closely to the history through presenting historical facts and put the main characters into historical events, but tends to dismiss them from the history. This means the intention to keep some distance from the history similar to the intention to keep some distance from the capitol city.

The reason why *Sohyeonseongrok* keeps trying to put distance is that it is difficult to accomplish in reality the morality of Sohyeonseong, which the novel pursues. The writer, trying to seek an appropriate extent to which Sohyeonseong's morality plays its role, reduces the domain of the novel to So's house in the Jaun Mountain. Also, distancing is a strategy for differentiating the novel to the effect that it is a result from the search for its own line in having a sense of rivalry for those novels enjoyed in the same times.

**Key Words** *Sohyeonseongrok*, the Jaun Mountain, space, history, North Song, Song's history, morality

논문투고일 : 2006. 5. 15
심사완료일 : 2006. 5. 29
게재확정일 : 2006. 6. 12

